

회차	근세/근대 태동기의 한국사 (조선)	
74	인내천 사상을 내세워 인간 평등을 주장하였다.	동학
74	[시대] 서열이 통정 운동을 전개하였다.	조선 후기
74	왕조 교체를 예언하는 정감록이 유포되었다.	세도 정치
74	국산 약재와 치료 방법을 정리한 향약집성방이 간행되었다.	조선 세종
74	[왕] 흑창에서 곡식을 빌리는 농민	태조왕건
74	[왕] 사섬서에서 저화를 발행하는 장인	조선 태종
74	[왕] 선혜청에서 공가(貢價)를 받는 상인	광해군
74	[시대] 상평통보로 물건을 거래하는 보부상	조선 후기
74	5품 이하의 관원에 대한 서경권을 행사하였다.	사헌부/사간원 (조선)
74	조선 왕실의 신위(신주) 모시는 곳	종묘
74	호패법 재 실시 / 이시애의 난	조선 세조
74	간경도감이 설치되었다.	조선 세조
74	조선경국전이 편찬되었다.	정도전
74	국조오례의가 완성되었다.	성종
74	부민고소금지법이 제정되었다.	세종
74	훈일강리역대국도지도가 제작되었다.	태종
74	[왕] 신숙주가 일본에 다녀와 해동제국기를 저술하였다.	성종
74	나세 등이 화포를 사용하여 진포에서 왜구를 격퇴하였다.	최무선
74	[시기] 포로 송환을 목적으로 회답검쇄환사가 일본에 파견되었다.	정유재란 이후
74	[왕] 조선 정부의 교역 제한에 반발하여 사랑진 왜변이 일어났다.	중종
74	[왕] 국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임시 기구로 비변사가 설치되었다.	중종
74	목호룡의 고변	신임사화 (경종)
74	[왕] 인조반정으로 복인 세력이 몰락하였다.	인조
74	[왕] 기축옥사로 이발 등 동인 세력이 축출되었다.	선조
74	[왕] 양재역 벽서 사건으로 이언적 등이 화를 입었다.	명종
74	[왕] 인현왕후가 폐위되고 남인이 권력을 차지하였다.	숙종 (기사환국)
74	[왕] 봉당의 폐해를 경계하기 위해 탕평비가 건립되었다.	영조
74	성학십도 / 기대승과 사단칠정 논쟁 전개	이황
74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 서원을 건립하였다.	주세붕
74	명에 대한 의리를 내세운 기축봉사를 올렸다.	송시열
74	동호문답을 통해 다양한 개혁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이
74	예안 향약을 시행하여 향촌의 교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이황
74	예학을 조선의 현실에 맞게 정리한 가례집람을 저술하였다.	김장생
74	[왕] 장용영, 수원 화성	정조
74	나선 정벌에 조총 부대를 파견하였다.	효종
74	문신을 재교육하기 위한 초계문신제를 실시하였다.	정조
74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고자 삼정이정청을 설치하였다.	철종 (박규수)
74	각 궁방과 중앙관서의 공노비 6만여 명을 해방하였다.	순조
74	[시기] 판소리 흥보가를 구경하는 농민	조선 후기
74	[시기] 옥계 시사에서 시를 낭송하는 중인	조선 후기
74	[시기] 세책가에서 춘향전을 빌리는 부녀자	조선 후기
74	[시기] 호랑이를 소재로 민화를 그리는 화가	조선 후기
74	[왕] 주자소에서 계미자를 만드는 장인	조선 태종
74	[시기] 초량왜관을 통해 일본과 교역하였다.	조선 후기
73	유랑민을 구휼하는 활인서를 설치하였다.	조선

회차	근세/근대 태동기의 한국사 (조선)	
73	고추, 담배와 같은 상품 작물 재배 / 광산을 전문적으로 경영하는 덕대	조선 후기
73	삼남 지방의 농법을 소개한 농사직설이 보급	조선
73	사초와 시정기 등을 종합하여 편찬하였다.	조선왕조실록
73	청주 흥덕사에서 금속 활자본으로 간행되었다.	직지심체요절
73	병인양요 당시 일부가 프랑스군에게 약탈되었다.	조선왕조의궤
73	허준이 우리나라와 중국의 의서를 망라하여 집대성하였다.	동의보감
73	국왕의 비서 기관에서 발행한 관보이다.	승정원일기
73	이성계를 도와 조선 건국을 주도한 인물 / <조선경국전> 저술	정도전
73	계유정난을 계기로 정계에서 축출되었다.	김종서
73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 서원을 건립하였다.	주세붕
73	일본에 다녀와서 해동제국기를 편찬하였다.	신숙주
73	성리학의 개념을 도식으로 설명한 성학십도를 지었다.	이황
73	불씨잡변을 지어 불교를 비판하였다.	정도전
73	수도 방어를 위해 금위영을 설치하였다.	숙종
73	음악 이론 등을 집대성한 악학궤범을 완성하였다.	성종
73	한양을 기준으로 한 역법서인 칠정산을 간행하였다.	세종
73	역대 문물제도를 정리한 동국문헌비고를 편찬하였다.	영조
73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지를 지급하는 직전법을 실시하였다.	세조
73	임진왜란 때 조선에 원군을 지원한 나라	명나라
73	나선 정벌에 조총 부대를 파견한 나라	청나라
73	하정사, 천추사 등 사절단을 보낸 나라	명나라
73	백두산정계비를 세워 국경을 획정한 상대 나라	청나라
73	한성에 동평관을 두어 무역을 허용한 나라	일본
73	결혼도감을 설치하고 공녀를 보냈던 상대 나라	원나라
73	[왕] 이관의 난이 일어나 공주로 피란했다.	인조
73	[왕] 단종의 복위를 꾀한 성삼문 등을 처형했다.	세조
73	[왕] 영창 대군을 죽이고 인목 대비를 유폐하였다.	광해군
73	[왕] 위훈 삭제를 주장한 조광조 일파를 제거하였다.	중종
73	[왕] 폐비 윤씨 사사 사건을 빌미로 신하들을 숙청하였다.	연산군
73	[왕] 조의제문을 구실로 사림 탄압 / 폭정으로 반정이 일어나 폐위됨	연산군
73	[장소] 정봉수가 후금의 침입에 맞서 싸웠다.	용골산성
73	[장소] 김준룡이 근왕병을 이끌고 적장을 사살하였다.	광교산 전투
73	[장소] 신립이 배수의 진을 치고 전투를 벌였다.	충주 탄금대
73	[장소] 병자호란 때 인조가 피란하여 항전하였다.	남한산성
73	[장소] 임진왜란 때 권율이 일본군을 크게 물리쳤다.	행주산성
73	향리의 범법 행위 감찰 / 지방의 풍속 유지	경재소
73	사헌부, 사간원과 함께 3사로 불렸다.	홍문관
73	소속 관원을 은대 학사라고도 칭하였다.	승정원
73	서얼 출신 학자들이 검서관에 등용되었다.	규장각
73	관할 유향소 임원의 임명권을 행사하였다.	경재소
73	대사성 이하 재주, 직감 등의 관직을 두었다.	성균관
73	[왕] 임술농민봉기 / 안동 김씨	철종
73	[왕] 윤지충 등이 처형된 신해박해가 일어났다.	정조 (1791)
73	[왕] 오페르트가 남연군 묘 도굴을 시도하였다.	고종 (1868)
73	[왕] 국왕의 친위 부대인 장용영이 창설되었다.	정조 (1791)

회차	근세/근대 태동기의 한국사 (조선)	
73	[왕] 경신환국 등 여러 차례 환국이 발생하였다.	숙종
73	[왕] 박규수의 건의로 삼정이정청이 설치되었다.	철종
73	선무군관 직책 설치	균역법
73	토산물을 쌀, 동전 등으로 납부	대동법
73	[왕] 시전 상인의 특권을 축소한 신해통공을 실시하였다.	정조
73	전세를 품흥에 따라 9등급으로 분류	연분 9등법
73	[왕] 설점수세제를 시행하여 민간의 광산 개발을 허용	효종
73	시사에서 시를 낭송 / 상평통보로 물건 거래 / 홍길동전 / 산대놀이	조선 후기
72	왕조 교체를 예언하는 정감록이 유포되었다.	조선 후기
72	송상이 전국 각지에 송방을 설치하였다.	조선 후기
72	광산을 전문적으로 경영하는 덕대가 나타났다.	조선 후기
72	정도전을 숙청하였다.	태종
72	주자소를 두어 계미자를 주조하였다.	태종
72	구황촬요를 간행하여 기근에 대비하였다.	명종
72	유자광의 고변을 계기로 남이를 처형하였다.	예종
72	세종이 학문 연구, 편찬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설치한 기구	집현전
72	은대(銀臺)라고도 불렸다.	승정원
72	단종 복위 운동을 계기로 세조에 의해 폐지되었다.	집현전
72	예약을 정리한 가례집람이 저술되었다.	김장생 (선조)
72	국가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이 완성되었다.	성종
72	외교 문서를 집대성한 동문휘고가 편찬되었다.	정조
72	봉당의 폐해를 경계하기 위한 탕평비가 건립되었다.	영조
72	악학궤범을 편찬하였다.	성종
72	[연도] 윤원형, 윤임 등 외척 간의 권력 다툼으로 사람이 피해를 입은 사건	을사사화 (1545)
72	[상대 나라] 연행사라는 이름으로 보내졌다.	청나라
72	암행어사의 형태로 비밀리에 파견되었다.	조선 시찰단
72	관련 기록물이 세계 기록 유산에 등재되었다.	조선 통신사
72	[상대 나라] 사행을 다녀온 여정을 조천록으로 남겼다.	명나라 (이항복, 1598)
72	삼전도에서의 굴욕적인 항복	병자호란 (인조)
72	이종무가 대마도를 정벌하였다.	조선 세종
72	강홍립이 사르후 전투에 참전하였다.	광해군 (후금 전쟁)
72	김준룡이 광교산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병자호란 (인조)
72	조헌이 금산에서 의병을 이끌고 활약하였다.	임진왜란
72	신립이 탄금대에서 배수의 진을 치고 전투를 벌였다.	임진왜란
72	방납의 폐단을 없애고자 선혜청을 두고 실시한 법	대동법 (광해군)
72	양반에게도 군포를 거두었다.	호포법
72	토지 1결당 쌀 2두의 결작을 부과하였다.	균역법 (영조)
72	전세를 품흥에 따라 9등급으로 차등 과세하였다.	공법 (세종)
72	부족한 재정 보충을 위해 선무군관포를 징수하였다.	균역법 (영조)
72	관청에 물품을 조달하는 공인이 등장하는 배경이 되었다.	대동법 (광해군)
72	기축봉사 / 희빈 장씨의 소생을 원자로 정한 데에 반대 / 제주도 유배	송시열 (기사환국)
72	지전설을 주장한 의산문답을 집필하였다.	홍대용
72	양명학을 연구하여 강화학파를 형성하였다.	정제두
72	역대 명필을 연구하여 추사체를 창안하였다.	김정희
72	양반의 허례와 무능을 풍자한 양반전을 지었다.	박지원

회차	근세/근대 태동기의 한국사 (조선)	
72	기해 예송에서 기년설을 주장하였다.	서인 (송시열)
72	[왕] 무예도보통지	정조
72	백두산정계비를 세워 청과의 국경을 정하였다.	조선 숙종
72	통치 체제를 정비하기 위해 속대전을 편찬하였다.	영조
72	규장각에 검서관을 두어 서얼 출신 학자들을 기용하였다.	정조
72	한양을 기준으로 역법을 정리한 칠정산 내편을 제작하였다.	세종
72	청의 요청으로 나선 정벌에 조총 부대를 파견하였다.	조선 효종
72	고경명 등이 의병장으로 활약하였다.	임진왜란
72	초계문신제 실시	정조
72	6조 직계제를 시행하였다.	조선 태종 / 세조
71	[시대] 송상이 전국 각지에 송방을 두었다.	조선 후기
71	[시대] 감자, 고구마 등의 구황 작물이 재배되었다.	조선 후기
71	[시대] 설점수세제의 시행으로 민간의 광산 개발이 허용되었다.	조선 후기
71	국자감에 전문 강좌인 7재를 개설하였어.	예종 (관학진흥책)
71	[나라] 사액 서원에 서적과 노비 등을 지급하였어.	조선
71	초계문신제를 시행하여 문신을 재교육하였어.	조선 정조
71	서얼이 통정 운동을 전개하였다.	조선 철종
71	[시대] 왕조 교체를 예언하는 정감록 등이 유포되었다.	조선 후기
71	[나라] 역관들이 시사(詩社)에 참여해 위향 문학 활동을 하였다.	조선
71	[인물] 불씨잡변을 지어 불교를 비판하였다.	정도전
71	[지역] 하회마을 / 봉정사 / 도산서원	안동
71	[지역] 묘청이 반란을 일으키고 국호를 대위라 하였다.	평양
71	독창적 문자인 훈민정음이 반포되었다.	세종
71	수도 방어를 위하여 금위영이 창설되었다.	숙종
71	조선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이 완성되었다.	성종
71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왕자의 난이 발생하였다.	조선 태조
71	성삼문 등이 상왕의 복위를 꾀하다가 처형되었다.	세조
71	수도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하였다.	한성부
71	홍선 대원군이 집권한 시기에 혁파되었다.	비변사
71	국왕 직속 사법 기구로 반역죄 등을 다루었다.	의금부
71	5품 이하의 관리 임명에 대한 서경권을 행사하였다.	사헌부
71	도승지를 수장으로 좌승지, 우승지 등의 관직을 두었다.	승정원
71	변방의 국방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대비하기 위한 임시 기구	비변사
71	대운과 소운이라는 정치 세력 간의 갈등 / 양재역 벽서 사건	을사사화
71	김종직의 조의제문이 발단이 되었다.	무오사화
71	폐비 윤씨 사사 사건이 원인이 되었다.	갑자사화
71	왕실 외척 간의 권력 다툼으로 일어났다.	을사사화
71	진성 대군이 왕으로 즉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갑자사화
71	조광조 등이 반정 공신의 위훈 삭제를 주장하였다.	기묘사화
71	정문부가 길주에서 의병을 이끌었다.	임진왜란
71	삼수병으로 구성된 훈련도감이 설치되었다.	임진왜란
71	영창 대군이 사사되고 인목 대비가 유폐되었다.	광해군
71	이덕형이 구원병 요청을 위해 명에 청원사로 파견되었다.	임진왜란
71	김상헌 등이 남한산성에서 화의에 반대하여 항전을 주장하였다.	병자호란 (1636)
71	[연도] 이괄의 난	1624년

회차	근세/근대 태동기의 한국사 (조선)	
71	금난전권 / 신해통공	정조
71	계해약조의 체결 과정을 확인한다.	세종
71	오가작통법의 실시 목적을 파악한다.	세조
71	토지 소유자에게 결작을 부과한 이유를 살펴본다.	영조
71	풍흉에 따라 전세를 차등 부과하는 기준을 알아본다.	세종
71	서쪽은 압록강, 동쪽은 토문강을 경계로 함 / 청과 조선 사이의 경계	백두산 정계비 (숙종)
71	최제우가 흑세무민의 죄로 처형되었다.	고종
71	변급, 신류 등이 나선 정벌에 참여하였다.	효종
71	국왕의 친위 부대인 장용영이 창설되었다.	정조
71	경신환국 등 여러 차례 환국이 발생하였다.	숙종
71	정여립 모반 사건을 빌미로 기축옥사가 일어났다.	선조
71	기대승과 사단칠정 논쟁을 전개하였다.	퇴계이황
71	북한산비가 진흥왕 순수비임을 고증하였다.	김정희 (금석과안록)
71	양명학을 연구하여 강화학파를 형성하였다.	정제두
71	청으로부터 시험력을 도입하자고 건의하였다.	김육
71	열하일기에서 수레와 선박의 사용을 강조하였다.	박지원
71	제주도 유배지 / 독창적인 서체 / 세한도	김정희
71	[시대] 담배 농사 / 춘향전 / 공민 / 광대	조선 후기
71	[왕] 염포 왜관에서 교역하는 상인	세종
71	안동 김씨 등 외척 세력이 세 왕에 걸쳐 60여 년 동안 권력을 잡은 시기	세도 정치
71	어영청을 중심으로 북벌이 추진되었다.	인조
71	윤지충 등이 처형된 신해박해가 일어났다.	정조
71	이필제가 영해 지역을 중심으로 난을 일으켰다.	고종
71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기 위해 삼정이정청이 설치되었다.	철종 (세도정치)
71	대전통편을 편찬하였다.	정조
70	[나라] 감자, 고구마 등의 작물이 널리 재배되었다.	조선 후기
70	[나라] 풍흉에 따라 9등급으로 전세를 거두었다.	조선
70	[왕] 두차례의 왕자의 난	조선 태종
70	경국대전을 완성하여 통치 체제를 정비하였다.	성종
70	초계문신제를 시행하여 문신들을 재교육하였다.	정조
70	길주를 근거지로 일어난 이시애의 난을 진압하였다.	세조
70	문하부를 폐지하고 낭사를 사간원으로 독립시켰다.	태종
70	봉당의 폐해를 경계하기 위한 탕평비를 건립하였다.	영조
70	계유정난 때 살해 당함 / 두만강 일대에 6진 개척	김종서
70	탄금대에서 배수의 진을 치고 싸웠다.	신립 (선조)
70	조총 부대를 이끌고 나선 정벌에 나섰다.	변급, 신유 (효종)
70	왜구의 근거지인 쓰시마섬을 정벌하였다.	박위 (고려) / 이종무 (세종)
70	외교 담판을 통해 강동 6주를 획득하였다.	서희 (거란 1차 침입)
70	[왕] 집현전의 직제를 분리하여 홍문관으로 이관	성종
70	국왕의 친위 부대인 장용영이 설치되었다.	정조
70	백운동 서원이 사액을 받아 소수 서원이 되었다.	명종
70	국가의 의례를 정비한 국조오례의가 완성되었다.	성종
70	통치 체제를 정비하기 위해 속대전이 편찬되었다.	영조
70	수조권이 세습되던 수신전과 홀양전이 폐지되었다.	세조
70	소격서 폐지, 현량과 실시	조광조 (중종)

회차	근세/근대 태동기의 한국사 (조선)	
70	[왕] 기해 예송	현종
70	정여립 모반 사건을 계기로 동인이 피해를 입었다.	기축옥사 (선조)
70	인현 황후가 폐위되고 남인이 권력을 차지하였다.	기사환국 (숙종)
70	고경명과 조헌이 의병으로 활동하였다.	임진왜란
70	왕이 도성을 떠나 남한산성으로 피란하였다.	병자호란
70	송시열, 이완 등을 중심으로 북벌이 추진되었다.	효종 (북벌운동)
70	국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비변사가 신설되었다.	삼포왜란
70	제한된 범위의 무역을 허용한 계해약조가 체결되었다.	세종
70	삼수병으로 구성된 훈련도감이 설치되었다.	임진왜란
70	[건축물] 오충 목조탑 내부에 부처의 일생을 그린 팔상도가 있다.	보은 법주사
70	[건축물] 배흘림기둥에 주심포 양식으로 축조된 무량수전이 있다.	영주 부석사
70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목조 건물인 극락전이 있다.	안동 봉정사
70	팔만대장경을 보관하는 장경판전이 있다.	합천 해인사
70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 발견된 삼층 석탑이 있다.	경주 불국사
70	공물을 현물 대신 토지의 결 수에 따라 쌀로 납부하는 제도	대동법 (광해군)
70	선혜청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대동법
70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지주에게 결작을 부과하였다.	균역법
70	관청에 물품을 조달하는 공인이 등장하는 배경이 되었다.	대동법
70	어장세, 선박세 등이 국가 재정으로 귀속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균역법
70	[왕] 규장각에 검서관을 두었다. (이덕무, 박제가, 유득공, 서이수)	정조
70	왕권 강화를 위해 6조 직제제가 시행되었다.	태종/세조
70	거중기 등을 활용하여 수원 화성이 축조되었다.	정조
70	청과 국경을 정하는 백두산정계비가 건립되었다.	숙종
70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기 위한 삼정이정청이 설치되었다.	임술농민봉기 이후 (철종)
70	[시대] 만상과 송상 / 보부상 / 덕대 / 여각 / 상품 작물 재배	조선 후기
70	열하일기 저술 / 청의 문물 수용 주장	박지원
70	북한산비가 진흥왕 순수비임을 고증하였다.	김정희 (금석과안록)
70	청으로부터 시현력을 도입하자고 건의하였다.	김육
70	우서에서 사농공상의 직업적 평등을 주장하였다.	유수원
70	양반전을 지어 양반의 허례와 무능을 풍자하였다.	박지원
70	10리마다 눈금을 표시한 대동여지도로 완성하였다.	김정호
70	조선 후기 대표적 풍속 화가 / 씨름도	김홍도
70	[궁궐] 돈덕전 /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서 거처를 옮김 / 서구식 건축물	덕수궁
70	도성 내 서쪽에 있어 서궐이라 불렸다.	경희궁
70	일제에 의해 창경원으로 격하되기도 하였다.	창경궁
70	정도전이 궁궐과 주요 전각의 명칭을 정하였다.	경복궁
70	태종이 도읍을 한양으로 다시 옮기며 건립하였다.	창덕궁
70	[왕] 금난전권 폐지를 반대하는 시전 상인	정조 (신해통공)
70	세도 정치기에 농민을 수탈하는 수단으로 변질	환곡제
70	빈민 구제 기구인 환곡제를 개편한 제도	사창제
69	[시대] 경성과 경원에 무역소를 두었다.	조선
69	[시대] 독점적 도매상인인 도고가 출현하였다.	조선
69	[시대] 감자, 고구마 등을 구황 작물로 재배하였다.	조선
69	[지역] 정몽주가 이방원 세력에게 피살되었다.	개경
69	[시대] 광산을 전문적으로 경영하는 덕대가 활동하였다.	조선

회차	근세/근대 태동기의 한국사 (조선)	
69	[시대] 기유약조를 체결하여 일본과의 교역을 재개하였다.	조선
69	2필의 역을 1필로 감하였다.	영조 (균역법)
69	공인이 등장하게 된 배경	대동법 (광해군)
69	선무군관포를 징수하였다.	영조
69	토산물을 쌀, 동전 등으로 납부하게 하였다.	대동법 (광해군)
69	전세를 풍흉에 따라 9등급으로 차등 부과하였다.	세종
69	[행정 기구] 관리의 위법 사항을 감찰/규찰하였다.	사헌부
69	[행정 기구] 수도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하였다.	한성부
69	[행정 기구] 왕의 출납을 맡은 왕의 비서 기관이었다.	승정원
69	[행정 기구] 왕에게 경서 등을 강론하는 경연을 주관하였다.	홍문관
69	[행정 기구] 역사서를 편찬하고 사고에 보관하는 일을 맡았다.	춘추관
69	5품 이하 관리의 임명 과정에서 서경권을 행사하였다.	사헌부/사간원 (대간)
69	소격서 폐지 주장 / 반정 공신의 위훈 삭제 주장	조광조
69	성학집요를 지어서 임금에게 바쳤다.	이이
69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사초에 포함시켰다.	김일손
69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 서원을 건립하였다.	주세붕
69	소학의 보급과 현량과 실시를 주장하였다.	조광조
69	재상 중심의 정치를 강조한 조선경국전을 저술하였다.	정도전
69	동생 영창 대군을 죽이고 어머니 인목대비를 폐위시켰다.	광해군 (폐모살제)
69	6조 직제제를 처음으로 실시하였다.	태종
69	학문 연구 기관으로 집현전을 두었다.	세종
69	역대 문물 제도를 정리한 동국문헌비고를 편찬하였다.	영조
69	시전 상인의 특권을 축소하는 신해통공을 단행하였다.	정조
69	전란의 피해를 복구하고 동의보감을 간행하였다.	광해군
69	국왕이 삼전도에서 항복하였다.	병자호란 (인조)
69	김종서가 두만강 일대에 6진을 개척하였다.	세종 (여진)
69	이종무가 적의 근거지인 쓰시마섬을 정벌하였다.	세종 (왜구)
69	강홍립이 이끄는 부대가 사르후 전투에 참전하였다.	광해군
69	국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비변사가 처음으로 설치되었다.	중종
69	현직 관리에게 전지를 주는 직전법을 시행하였다.	세조
69	음악 이론 등을 집대성한 악학궤범이 완성되었다.	성종
69	세계 지도인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가 제작되었다.	태종
69	신하를 재교육하기 위한 초계문신제도가 실시되었다.	정조
69	삼남 지방의 농법을 소개한 농사직설이 편찬되었다.	세종
69	불교 경전을 간행하는 간경도감이 설치되었다.	세조
69	[지역] 신립 장군의 탄금대 전투 / 김윤후의 대몽 항쟁 / 다인철소	충주
69	[지역] 명 신종을 기리는 만동묘가 건립되었다.	충북 괴산
69	장희빈이 낳은 아들을 원자로 삼았다.	기사환국
69	무신 이징옥이 반란을 일으켰다.	세조
69	자의 대비의 복상 문제로 예송이 일어났다.	현종
69	정여립 모반 사건을 빌미로 기축옥사가 발생하였다.	선조
69	봉당 정치의 폐해를 막기 위해 탕평비가 건립되었다.	영조
69	송시열이 유배된 후 사사되었다.	숙종 (기사환국)
69	북학의 저술하여 청 문물을 적극 수용	박제가
69	세계 지리서인 지구전요를 저술하였다.	최한기

회차	근세/근대 태동기의 한국사 (조선)	
69	의산문답에서 무한 우주론을 주장하였다.	홍대용
69	기기도설을 참고하여 거중기를 설계하였다.	정약용
69	서자 출신으로 규장각 검서관에 기용되었다.	이덕무, 박제가, 유득공
69	양반전을 지어 양반의 허례와 무능을 풍자하였다.	박지원
69	유계춘이 주도하여 진주에서 백성들이 일으킨 난	임술 농민 봉기
69	왕이 공산성으로 피란하는 계기가 되었다.	인조 (이괄의 난)
68	장영실, 이천 등이 제작한 활자로 인쇄하였다.	갑인자 (세종)
68	불씨잡변 저술 / 경복궁 / 1차 왕자의 난 때 죽음 당함	정도전
68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 서원 건립	주세붕
68	일본에 다녀와 해동제국기를 편찬	신숙주
68	성학십도를 지어 군주의 도를 도식으로 설명하였다.	퇴계이황
68	조선경국전을 저술하여 통치 제도 정비에 기여하였다.	정도전
68	경세유표를 집필하여 국가 제도의 개혁 방향을 제시하였다.	정약용
68	[왕] 이시애의 난	세조
68	주자소를 설치하여 계미자를 주조하였다.	태종
68	현직 관리를 대상으로 직전법을 실시하였다.	세조
68	조선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을 완성하였다.	성종
68	기유약조를 체결하여 일본과의 무역을 재개하였다.	광해군
68	폐비 윤씨 사사 사건을 빌미로 갑자사화를 일으켰다.	연산군
68	지리산 산천재에서 학문 연구 / 호: 남명 / 성리학자 / 경(敬)과 의(義)를 강조	남명 조식
68	곽재우, 정인홍 등의 제자 배출	남명 조식
68	기기도설을 참고하여 거중기를 설계	정약용
68	위훈 삭제를 주장하여 훈구 세력의 반발을 샀다.	조광조
68	북학의를 저술하여 수레와 배의 이용을 권장하였다.	박제가
68	양명학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강화 학파를 형성하였다.	정제두
68	토지의 비옥도와 풍흉에 따라 조세를 차등 징수	전분6등법, 연분9등법 (세종)
68	[왕] 세계지도인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가 제작되었다.	태종
68	[왕] 각지의 농법을 작물별로 정리한 농사직설이 간행되었다.	세종
68	[왕]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초계문신제가 시행되었다.	정조
68	[왕] 우리나라와 중국의 의서를 망라한 동의보감이 완성되었다.	광해군
68	[왕] 전국의 지리, 풍속 등이 수록된 동국여지승람이 편찬되었다.	성종
68	산대놀이 / 송파장 / 고추, 담배	조선 후기
68	탕평비 건립 / 신문고 재설치	영조
68	왕권 강화를 위해 친위 부대인 장용영을 설치하였다.	정조
68	각 국방과 중앙 관서의 공노비 6만여 명을 해방하였다.	순조
68	어영청을 중심으로 국방력을 강화하고 복벌을 추진하였다.	효종
68	균역법을 시행하여 백성들의 균역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였다.	영조
68	은대라고 불림 / 왕명의 출납 담당	승정원
68	수도의 행정과 치안 담당	한성부
68	재상들이 합의하여 국정 총괄	의정부
68	반역죄, 강상죄를 범한 중죄인 처벌	의금부
68	외적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한 임시 기구로 설치	비변사
68	[왕] 예송논쟁	현종
68	[장소] 태조 이성계가 개경에 처음 세움 / 역대 국왕과 왕비의 신주 모심	종묘
68	[장소] 토지와 곡식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공간	사직

회차	근세/근대 태동기의 한국사 (조선)	
68	[장소] 경내에 조선 총독부 청사가 세워짐	경복궁
68	[장소] 대성전과 명륜당을 중심으로 구성	성균관
68	[장소] 일제 강점기에 창경원으로 격화되기도 하였다.	창경궁
68	조선시대 역관 / 통역관 / 교역으로 막대한 부 축적	중인
68	수령을 보좌하면서 향촌 실무를 담당	향리
68	매매, 상속, 증여의 대상	노비
68	사간원에서 간쟁을 담당	대간
68	사역원에서 노걸대언해 같은 교재로 교육 받음	중인
68	통신사가 처음 파견되는 계기가 되었다.	임진왜란
67	[왕] 삼전도비가 건립된 계기를 찾아본다.	조선 인조
67	사가독서제를 시행하여 학문에 전념하게 하였다.	조선 세종
67	[역사서] 본기라는 이름을 피하고 세가라고 한 것은 명분의 중요성을 나타내기 위함이며,	고려사
67	[역사서]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연대순으로 기록하였다.	동국통감
67	[역사서] 조선 건국을 정당화하는 입장에서 고려의 역사를 정리하였다.	고려사
67	향리의 비리 감찰 / 이시애의 난 이후로 폐지	유향소
67	조광조 일파의 건의로 폐지	소격서
67	좌수와 별감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유향소
67	풍기 군수 주세붕이 처음 설립하였다.	서원
67	대사성 이하 좌주, 직강 등의 관직을 두었다.	성균관
67	매향 활동 등 각종 불교 행사를 주관하였다.	향도
67	[인물] 고려사절요 저술 / 계유정난 때 살해	김종서
67	불씨잡변을 지어 불교를 비판하였다.	정도전
67	반정 공신의 위훈 삭제를 주장하였다.	조광조 (중종)
67	왜구 근거지인 쓰시마섬을 정벌하였다.	이종무 (세종)
67	충청도 지역까지 대동법의 확대 실시를 건의하였다.	김육 (광해군)
67	여진을 정벌하고 6진을 개척하였다.	김종서
67	인삼 무역 / 담배 농사 / 시사 / 판소리 공연	조선 후기 경제/사회
67	북학의 저술 / 청 문물 도입 / 소비 촉진 주장	박제가
67	경세유표 저술	정약용
67	100리 척을 사용하여 동국지도를 제작	정상기
67	곽우록에서 토지 매매를 제한하는 한전론을 제시	이익
67	의산문답에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 비판	홍대용
67	여전론을 통해 마을 단위의 공동 경작 주장	정약용
67	양명학을 연구하여 강화학파를 형성	정제두
67	[왕] 이괄의 난	인조
67	[왕] 삼수병 체제의 훈련도감 조직	선조
67	[왕] 금위영 창설	숙종
67	혜경궁 홍씨의 아들 / 아버지의 무덤 (현릉원)	정조
67	자의 대비 복상 문제로 예송이 전개되었다.	현종
67	명의 신종을 제사 지내는 만동묘가 설치되었다.	숙종
67	문신을 재교육하기 위한 초계문신제가 실시되었다.	정조
67	봉당의 폐해를 경계하는 탕평비가 성균관에 건립되었다.	영조
66	고구마, 감자 등의 구황 작물을 재배하였다.	조선 후기
66	설점수세제 시행으로 민간의 광산 개발이 허용되었다.	조선 후기 (효종)
66	서얼 출신의 학자들이 검서관으로 기용되었다.	규장각 (정조)

회차	근세/근대 태동기의 한국사 (조선)	
66	[국가] 초량 왜관에서 교역하는 상인	조선
66	내의원에서 동의보감을 읽는 의원	조선 광해군
66	갑인자 활자 주조	세종
66	조선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을 반포하였다.	성종
66	역대 문물을 정리한 동국문헌비고를 간행하였다.	영조
66	삼남 지방의 농법을 소개한 농사직설을 편찬하였다.	세종
66	전세를 1결당 4~6두로 고정하는 영정법을 제정하였다.	인조
66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기 위해 삼정이정청을 설치하였다.	철종 (박규수 건의)
66	김종직의 조의제문	무오사화
66	조광조의 급진개혁정책	기묘사화
66	정여립 모반 사건으로 기축옥사 일어났다.	선조
66	외척 간의 권력 다툼으로 윤임이 제거되었다.	을사사화
66	자의 대비의 복상 문제로 예송이 전개되었다.	현종
66	희빈 장씨 소생의 원자 책봉 문제로 환국이 발생하였다.	기사환국 (숙종)
66	폐비 윤씨 사사 사건을 빌미로 김평필 등이 처형되었다.	갑자사화
66	강홍립이 밀지를 받고 후금에 거짓 투항	광해군 중립외교
66	정유재란	선조 (1597)
66	정묘호란	인조 (1627)
66	동래 부사 송상현 / 금산 전투 / 유성룡의 징비록	임진왜란
66	김상헌이 강화도에서 순절하였다.	병자호란 (인조)
66	이괄이 이끈 반란군이 도성을 장악하였다.	인조
66	정봉수와 이립이 용골산성에서 항전하였다.	정묘호란 (인조)
66	김시민이 진주성에서 적군을 크게 물리쳤다.	임진왜란
66	이종무가 적의 근거지인 쓰시마섬을 정벌하였다.	세종
66	탕평 군주 / 균역법	영조
66	학문 연구 기관으로 집현전을 두었다.	세종
66	삼수병으로 구성된 훈련도감을 설치하였다.	선조
66	속대전을 편하여 통치 체제를 정비하였다.	영조
66	궁중 음악을 집대성한 악학궤범을 편찬하였다.	성종
66	시전 상인의 특권을 축소하는 신행통공을 단행하였다.	정조
66	담헌 / 천문 관측 / 연행사 일원 / '연기', '을병연행록' 저술	홍대용
66	지봉유설에서 천주실의를 소개하였다.	이수광
66	의산문답에서 무한 우주론을 주장하였다.	홍대용
66	양반전을 지어 양반의 허례와 무능을 풍자하였다.	박지원
66	북학의를 저술하여 청의 문물 수용을 강조하였다.	박제가
66	동의수세보원을 편찬하여 사상 의학을 정립하였다.	이제마
66	[왕] 제주도에 표착한 외국인 하멜 / 나선 정벌과 조총부대 파견	효종
66	위화도 회군과 과전법 시행	이성계
66	문신 재교육을 위한 초계문신제 운영	정조
66	백두산정계비 건립과 청과의 국경 획정	숙종
66	기유약조 체결을 통한 일본과의 무역 재개	광해군 중립외교
66	어영청의 개편과 북벌 추진	효종
66	담배 / 이앙 / 목화 밭 / 공인 / 보부상 / 국경지대의 개시 무역과 후시 무역	조선 후기
66	[궁궐] 태종이 도읍을 한양으로 다시 옮기며 건립하였다.	창덕궁
66	이원익이 대동법 시행을 건의하였다.	광해군

회차	근세/근대 태동기의 한국사 (조선)	
66	[역사서] '고려가 끝내 발해사를 편찬하지 않아 누구의 땅인지 알 수 없게 되었다.'	유득공 '발해고'
66	금석학을 연구하여 북한산비가 진흥왕 순수비임을 고증하였다.	김정희
66	사초와 시정기 등을 바탕으로 편찬하였다.	조선왕조실록
65	[상대 나라] 조총 부대를 나선 정벌에 파견하였다.	청나라
65	[상대 나라] 국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비변사를 신설하였다.	일본 (임진왜란)
65	[시대] 농사직설을 편찬하는 학자	조선 (세종)
65	[시대] 초량 왜관에서 교역하는 상인	조선
65	[시대] 규장각 검서관으로 근무하는 서얼	조선 (정조)
65	[왕] 계해약조가 체결되어 일본과 교역하였다.	세종
65	[시대] 광산을 전문적으로 경영하는 덕대가 등장하였다.	조선 후기
65	[지역] 화엄산 각황전	전남 구례 (숙종)
65	[지역] 법주사 팔상전	충남 보은
65	[왕] 경국대전을 완성하고 반포하였다.	성종
65	[왕] 독립된 간쟁 기관으로 사간원이 설치되었다.	태종
65	[왕] 함길도 토착 세력인 이시애가 난을 일으켰다.	세조
65	[왕] 직제가 개편된 홍문관에서 경연을 주관하였다.	성종
65	[왕] 집현전 관리를 대상으로 사가독서제가 시행되었다.	세종
65	[왕] 봉당의 폐해를 경계하기 위한 탕평비가 건립되었다.	영조
65	윤임 일파가 축출되었다.	을사사화
65	인조반정으로 복인 세력이 몰락하였다.	광해군
65	인현왕후가 폐위되고 남인이 권력을 차지하였다.	기사환국
65	수양대군이 황보인, 김종서를 축출하고 정권을 장악하였다.	계유정난
65	폐비 윤씨 사사 사건으로 인해 김굉필 등이 처형되었다.	갑자사화 (연산군)
65	안견이 안평대군의 꿈 이야기를 듣고 그린 그림	몽유도원도
65	조명 연합군이 평양성을 탈환하였다.	임진왜란
65	강홍립이 사르후 전투에 참전하였다.	광해군 중립외교
65	김준룡이 광교산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병자호란
65	김종서가 두만강 일대에 6진을 개척하였다.	세종
65	곽재우, 김천일 등이 의병장으로 활약하였다.	임진왜란
65	김상헌이 세자빈과 봉림대군 등 왕실 사람들을 호종하여 강화도로 피난하였다.	병자호란 (1636)
65	화성 행궁 / 아버지 사도세자	정조
65	청과 국경을 정하는 백두산정계비를 세웠다.	숙종
65	통치 체제를 정비하고자 속대전을 편찬하였다.	영조
65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려고 삼정이정청을 설치하였다.	철종
65	시전 상인의 특권을 축소하는 신해통공을 단행하였다.	정조
65	광해군 때 방납의 폐단을 혁파하고자 선혜청을 두고 실시하였다.	대동법
65	양반에게도 군포를 부과하였다.	호포법
65	[왕] 수신전과 홀양전을 폐지하였다.	세조
65	전세를 풍흉에 따라 9등급으로 차등 과세하였다.	세종 연분9등법
65	관청에 물품을 조달하는 공인이 등장하는 배경이 되었다.	대동법
65	진주성 전투	임진왜란
65	이종무의 대마도 정벌	세종
65	성호사설	이익
65	마과회통에서 홍역에 대한 지식을 정리하였다.	정약용
65	의산문답에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하였다.	홍대용

회차	근세/근대 태동기의 한국사 (조선)	
65	발해고에서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다.	유득공
65	곽우록에서 토지 매매를 제한하는 한전론을 제시하였다.	이익
65	금석과안록에서 북한산비가 진흥왕 순수비임을 고증하였다.	김정희
65	판소리 / 광대 / 도고 / 중인 / 인삼, 담배 등 상품 작물 재배	조선 후기
65	[지역] 기묘사화로 유배된 조광조가 사사된 장소	전남 화순
65	[지역] 유형원이 반계수록을 저술한 장소	전북 부안
64	구황 작물로 감자, 고구마를 널리 재배하였다.	조선 후기
64	상평통보가 발행되어 법화로 사용되었다.	조선
64	집현전 설치	세종
64	수도 방어를 위해 금위영을 설치하였다.	숙종
64	훈련 교범인 무예도보통지가 편찬되었다.	정조
64	국가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이 완성되었다.	성종
64	신진 인사를 등용하기 위해 현량과가 시행되었다.	중종
64	금속 활자인 갑인자가 제작되었다.	세종
64	[건축] 후원, 부용지, 주합루, 돈화문, 세계문화유산	창덕궁
64	[건축] 일제에 의해 동물원이 설치되었다.	창경궁
64	[건축] 도성 내 서쪽에 있어 서궐이라고 불렸다.	경희궁
64	[건축] 인목 대비가 광해군에 의해 유폐된 장소이다.	덕수궁
64	[건축] 정도전이 궁궐과 주요 전각의 명칭을 정하였다.	경복궁
64	[건축] 태종이 도읍을 한양으로 다시 옮기며 건립하였다.	창덕궁
64	약문 / 약계 / 약법 / 도약정, 부약정 직급	향약
64	7재라는 전문 강좌를 두었다.	국자감
64	옥당이라고 불리며 경연을 담당하였다.	홍문관
64	중앙에서 파견된 교수나 훈도가 지도하였다.	향교
64	풍속 교화와 향촌 자치 등의 역할을 하였다.	향약
64	매향 활동 등 각종 불교 행사를 주관하였다.	향도
64	민간의 광산 개발 허용 후 세금을 거둬	설점수세제 (효종)
64	[시대] 고추, 담배 등 상품 작물을 재배하는 농민	조선 후기
64	과전법에 따라 수조권을 지급받는 관리	조선 전기 (공양왕)
64	[배경] 안핵사로 박규수 파견, 삼정이정청 설치	임술농민봉기 (진주민란)
64	동문선 집필	성종
64	외교문서를 집대성한 동문회고를 편찬	정조
64	국가의 의례를 정비한 국조오례의 완성	성종
64	전통 한의학을 정리한 동의보감 간행	광해군
64	역대 문물 제도를 정리한 동국문헌비고 집필	영조
64	예학을 정리한 가례집람 저술	김장생
64	연산군을 폐위하고 즉위한 왕 / 삼포에서 왜인들이 난을 일으킴	중종
64	이괄이 난을 일으켜 도성을 점령하였다.	인조
64	허적과 윤휴 등 남인이 대거 축출되었다.	경신환국 (숙종)
64	정여립 모반 사건으로 기축옥사가 일어났다.	선조
64	위훈 삭제를 주장한 조광조 일파가 제거되었다.	중종
64	조의제문이 발단이 되어 김일손 등이 화를 입었다.	무오사화 (연산군)
64	조현의 금산 전투 / 의병장 : 김천일, 정문부, 사명대사 (유정)	임진왜란
64	[왕] 이종무가 대마도를 정벌하였다.	세종
64	송상현이 동래성에서 항전하였다.	임진왜란

회차	근세/근대 태동기의 한국사 (조선)	
64	김상헌이 강화도에서 순절하였다.	병자호란
64	최영이 홍산 전투에서 크게 승리하였다.	고려 말
64	강희립 부대가 사르후 전투에 참전하였다.	광해군
64	인재 양성을 위해 초계문신제를 시행하였다.	정조
64	홍경래 등이 봉기하여 정주성을 점령하였다.	순조
64	자의 대비의 복상 문제로 예송이 전개되었다.	현종
64	이인좌를 중심으로 소론 세력 등이 난을 일으켰다.	영조
64	신류가 조총 부대를 이끌고 흑룡강에서 전투를 벌였다.	효종
64	대전통편이 완성되었다.	정조
64	일본에 다녀와 해동제국기를 편찬하였다.	신숙주
64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 서원을 건립하였다.	주세붕
64	북한산비가 진흥왕 순수비임을 고증하였다.	김정희
64	양명학을 연구하여 강화학파를 형성하였다.	정제두
64	기기도설을 참고하여 거중기를 설계하였다. / 목민심서, 경세유표 집필	정약용
64	도에는 관찰사가 임명되어 수령을 감독하였다.	조선 8도
63	사액 서원에 서적과 노비를 지급하였다.	조선
63	중등 교육 기관으로 4부 학당을 설립하였다.	조선
63	초계문신제를 시행하여 문신을 재교육하였다.	조선 정조
63	허적의 제안에 따라 상평통보를 발행하였다.	조선 숙종
63	일본과의 교역 규모를 규정한 계해 약조를 체결하였다.	조선 세종
63	청계천 준설 공사 / 탕평책, 균역법 시행	영조
63	나선 정벌에 조총 부대 파견하였다.	효종
63	경기도에 한해서 대동법을 실시하였다.	광해군
63	삼수병으로 구성된 훈련도감을 창설하였다.	선조
63	통치 제도를 정비하고자 속대전을 편찬하였다.	영조
63	한양을 기준으로 한 역산서인 칠정산을 만들었다.	세종
63	김종직의 조의제문	무오사화 (연산군)
63	김종서, 황보인 등을 제거하고 왕위에 오른 왕	조선 세조 (계유정난)
63	주자소에서 계미자를 주조하였다.	태종
63	국조오례의를 완성하였다.	성종
63	삼남 지방의 농법을 소개한 농사직설을 편찬하였다.	세종
63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지를 지급하는 직전법을 시행하였다.	세조
63	우리나라와 중국의 의서를 망라한 동의보감을 간행하였다.	광해군
63	해주향약 시행 / 동호문답, 격몽요결 저술	율곡 이이
63	명에 대한 의리를 내세운 기축봉사를 올렸다.	송시열
63	청으로부터 시현력을 도입하자고 건의하였다.	김육
63	양반의 허례와 무능을 풍자한 양반전을 저술하였다.	박지원
63	예학을 조선의 현실에 맞게 정리한 가례집람을 지었다.	김장생
63	군주가 수양해야 할 덕목과 지식을 담은 성학집요를 집필하였다.	율곡 이이
63	[왕] 이조 전랑 임명 문제로 동인과 서인으로 분열	선조
63	[왕] 기해예송	현종
63	양재역 벽서 사건으로 이언적 등이 화를 입었다.	명종
63	인현 왕후가 폐위되고 남인이 권력을 차지하였다.	숙종
63	이인좌를 중심으로 소론 세력 등이 난을 일으켰다.	영조
63	목호룡의 고변으로 옥사가 발생하였다.	조선 경종

회차	근세/근대 태동기의 한국사 (조선)	
63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피신하여 항전한 나라	청나라 (후금)
63	[상대 나라] 만권당을 세워 학문 교류를 장려하였다.	원나라, 몽골
63	[상대 나라] 어영청을 강화하는 등 복벌을 추진하였다.	청나라 (후금)
63	[상대 나라] 화통도감을 설치하여 군사력을 증강하였다.	일본
63	[상대 나라] 사신 접대를 위해 한성에 동평관을 설치하였다.	일본
63	[상대 나라] 포로 송환을 목적으로 유정을 회답 겸 쇄환사로 파견하였다.	일본
63	[시대] 인삼, 담배 등이 상품 작물로 재배되었다.	조선 후기
63	홍선 대원군이 집권한 시기에 혁파된 기구	비변사
63	사헌부, 사간원과 함께 3사로 불렸다.	홍문관
63	서얼 출신 학자들이 검서관에 등용되었다.	규장각
63	서울과 수원에 설치되어 국왕의 호위를 맡았다.	장용영
63	대사성을 수장으로 재주, 직감 등의 관직을 두었다.	성균관
63	세한도 / 제주도에서 유배생활	김정희
63	[인물]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다.	유득공
63	[인물] 기기도설을 참고하여 거중기를 설계하였다.	정약용
63	[인물] 북한산비가 진흥왕 순수비임을 고증하였다.	김정희
63	[인물] 양명학을 연구하여 강화학파를 형성하였다.	정제두
63	[인물] 안평 대군의 꿈을 소재로 몽유도원도를 그렸다.	안견
63	윤지충과 권상연의 제사 거부	신해박해 (1791)
63	프랑스와 조약을 맺고 선교사 교섭하여 처형 당함	병인박해 (1866~)
63	[연도] 이수광이 지봉유설에서 천주실의를 소개하였다.	1614년
63	[연도] 황사영이 외국 군대의 출병을 요청하는 백서를 작성하였다.	1801년
63	[지역] 내상이 무역활동을 전개하였다.	부산 (동래)
63	[지역] 지역 차별에 반발하여 홍경래가 봉기하였다.	평안도 정주
63	용골산성 / 정봉수	정묘호란 (인조)
63	송상현의 부산 동래성 전투	임진왜란
62	조선 태종 때 경성과 경원에 무역소를 설치하여 회유하였다.	여진
62	조선 광해군 때 기유약조를 체결하여 무역을 재개하였다.	일본
62	[나라] 만상이 대정 무역으로 부를 축적하였다.	조선 후기
62	[나라] 광산을 전문적으로 경영하는 덕대가 등장하였다.	조선 후기
62	기근에 대비하기 위해 구황촬요가 간행	조선 명종
62	4군 6진을 개척해 영토를 확장하였다.	조선 관군 (세종)
62	유사시에 향토 방위를 담당하는 예비군이였다.	조선 잡색군
62	두 차례 왕자의 난으로 즉위한 왕	조선 태종
62	조선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 완성	조선 성종
62	국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비변사 설치	조선 중종
62	세계 지도인 혼일강리역대국지도 제작	조선 태종
62	한양을 기준으로 한 역법서인 칠정산 간행	조선 세종
62	은대라고 불린 기구	승정원
62	사간원, 사헌부와 함께 3사로 불렸다.	조선 홍문관
62	천문 연구, 기상 관측 등의 일을 맡았다.	관상감
62	실록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	춘추관
62	국왕 직속 사법 기구로 강상죄, 반역죄 등을 처벌하였다.	의금부
62	왕명의 출납을 관장	승정원
62	훈민정음 해례본 편찬에 참여 / 계유정난으로 정난공신 2등에 책훈	신숙주

회차	근세/근대 태동기의 한국사 (조선)	
62	기해 예송에서 기년설을 주장	송시열
62	반정 공신의 위훈 삭제를 건의	조광조
62	향촌의 풍속 교화를 위해 예안 향약을 시행	퇴계 이황
62	최초로 100리 척을 사용한 동국지도 제작	정상기
62	일본의 정치, 사회, 지리 등을 정리한 해동제국기를 저술	신숙주
62	박연이 악곡을 정리 / 여민락 작곡	조선 세종
62	창덕궁에 신문고를 처음 설치	태종
62	삼수병으로 구성된 훈련도감을 창설	선조
62	봉당 정치의 폐단을 경계하고자 탕평비 세움	영조
62	통치 체제를 정비하기 위해 대전통편을 간행	정조
62	유교 윤리 보급을 위해 삼강행실도를 편찬	세종
62	선혜청 등에 공가를 받아 궁궐과 관청에 납품하는 상인	공인
62	관수 관급제가 시행	조선 성종
62	[결과] 공납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대동법 시행	공인 탄생
62	육의전을 제외한 시전 상인의 금난전권이 폐지	정조
62	[연도] 권율의 행주대첩	1593년
62	[연도] 이순신의 한산도 대첩	1592년
62	[연도] 신립의 충주 탄금대 전투 (배수의 진)	1592년
62	[연도] 휴전 회담의 결렬로 정유재란 시작	1597년
62	양재역 벽서 사건	조선 명종
62	사람이 동인, 서인으로 나뉘었다.	선조
62	외척 간의 대립으로 을사사화가 일어났다.	명종
62	서인이 반정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였다.	인조반정
62	김종직 등 사림 중앙 정계에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성종
62	폐비 윤씨 사사 사건의 전말이 알려져 김광필 등이 처형되었다.	갑자사화 (연산군)
62	[장소] 정조 행차 시 머물렀던 행궁 / 장용영 군사 지휘	수원화성
62	고종이 아관파천 이후 환궁한 곳	경운궁 (덕수궁)
62	당백전을 발행하여 건설 비용 충당	경복궁
62	포루, 공심돈 등 방어 시설 / 정약용이 고안한 거중기 활용하여 축조	수원화성
62	허생전 저술	박지원
62	의산문답 (지전설)	홍대용
62	갑술환국으로 정계에서 축출되었다.	남인
62	양명학을 연구하여 강화학파를 형성하였다.	정제두
62	서얼 출신으로 규장각 검서관에 기용되었다.	유득공, 박제가, 정약용
62	농민 생활의 안정을 위해 화폐 사용을 반대하였다.	성호 이익
62	[시대] 민화 유행 / 판소리 / 탈춤 광대 / 보부상 / 한글 소설	조선 후기
62	조선 시대 왕실이나 국가의 큰 행사에 관련 사실을 글과 그림으로 기록한 책	의궤
62	사초와 시정기를 바탕으로 편찬 / 편년체로 구성	조선왕조실록
62	왕의 열람을 위한 어람용 따로 제작 / 병인양요 당시 일부가 프랑스군에 약탈	의궤
62	지공거와 합격자 사이에 좌주와 문생 관계 형성	과거제
62	제술과, 명경과, 잡과, 승과로 구성	과거제
62	성균관에서 보는 관시, 한성부에서 보는 한성시, 각 지방에서 보는 향시로 구분	과거제
61	농사직설을 편찬하는 학자	조선 세종
61	삼강행실도를 읽고 있는 양반	조선 세종
61	백운동 서원에서 공부하는 유생	조선 중종 (주세붕 건의)

회차	근세/근대 태동기의 한국사 (조선)	
61	송상이 전국 각지에 송방을 두었다.	조선 후기
61	담배, 면화, 생강 등 상품 작물을 널리 재배	조선 후기
61	일본과 교역을 위해 부산포, 옹포, 제포를 개항	조선 세종
61	신기전과 화차 개발	조선 세종
61	불랑기포를 활용하여 평양성 탈환	조선 선조
61	조총 부대를 이끌고 나선 정벌 참여	조선 효종
61	발화 장치를 활용한 비격진천뢰를 발명	조선 선조 (이장손)
61	악학궤범 완성	조선 성종
61	주자소가 설치되어 계미자가 주조되었다.	조선 태종
61	전통 한의학을 집대성한 동의보감이 완성되었다.	광해군 (허준)
61	통치 체제를 정비하기 위해 속대전이 간행되었다.	영조
61	한양을 기준으로 역법을 정리한 칠정산이 제작되었다.	세종
61	전국의 지리, 풍속 등이 수록된 동국여지승람이 편찬되었다.	조선 성종
61	성삼문 등이 단종의 복위를 꾀하였다.	조선 세조
61	외척 간의 대립으로 윤임이 제거되었다.	조선 명종
61	이괄이 난을 일으켜 한양을 점령하였다.	인조
61	성희안 일파가 반정을 통해 연산군을 몰아내었다.	중종반정
61	조의제문이 발단이 되어 김일손 등이 화를 입었다.	연산군 무오사화
61	폐비 윤씨 사사 사건	갑자사화
61	조광조 / 주초위왕	기묘사화
61	조선 시대에 언론 활동, 풍속 교정, 백관에 대한 규찰과 탄핵 등을 관장하던 기구	사헌부
61	업무일지인 내각일력을 작성하였다.	규장각
61	고려의 삼사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였다.	회계/재정 부서
61	은대, 후원이라고도 불리었다.	승정원
61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국정 전반을 총괄하였다.	비변사
61	5품 이하의 관리 임명에 대한 서경권을 행사하였다.	사헌부
61	영의정 허적(남인)의 천막 무단 사용	경신환국
61	장희빈 아들 원자 책봉 / 인현황후 폐위 / 서인 송시열 퇴출	기사환국
61	서인의 인현황후 복위 추진	갑술환국
61	봉림 대군과 인평 대군이 강화로 피신	병자호란
61	정문부가 길주에서 의병을 이끌었다.	임진왜란
61	강홍립이 사르후 전투에 참전하였다.	광해군 중립외교
61	김시민이 진주성에서 적군을 크게 물리쳤다.	임진왜란
61	임경업이 백마산성에서 적의 침입에 대비하였다.	병자호란
61	최윤덕이 올라산성에서 이만주 부대를 정벌하였다.	4군 개척
61	만상 / 인삼	조선 후기
61	수원화성 / 장용영	정조
61	경기도에 한하여 대동법 시행	광해군
61	군역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균역법 제정	영조
61	육의전을 제외한 시전 상인의 금난전권 폐지	정조 (신해통공)
61	제한된 규모의 무역을 허용한 계해약조 체결	세종
61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는 직전법 실시	세조
61	삼정이정청이 설치되는 계기 / 진주 안핵사 박규수 파견	임술농민봉기
61	윤원형 일파가 정국을 주도한 시기에 발생	을사사화
61	사초와 시정기를 바탕으로 실록청에서 편찬	조선왕조실록

회차	근세/근대 태동기의 한국사 (조선)	
61	고조선부터 고려까지의 역사를 편년체로 정리	동국통감
60	불씨잡변을 지어 불교를 비판	정도전
60	학술 기관으로 경연을 관장하였다.	조선 홍문관
60	실록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다.	조선 춘추관
60	[시대] 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조선
60	[시대] 초량 왜관을 통해 일본과 무역하였다.	조선
60	[시대] 감자, 고구마 등의 작물이 재배되었다.	조선
60	[시대] 광산을 전문적으로 경영하는 덕대가 활동하였다.	조선
60	개국 공신에게 역분전을 지급하였다.	정도전 (태조 이성계)
60	인재 등용을 위해 현량과 실시를 제안	조광조
60	해주 향약을 시행하여 향촌 교화를 위해 노력	율곡이이
60	최윤덕이 4군을 개척하였다.	세종 (조선)
60	근정전을 정전으로 하였다.	경복궁
60	일제에 의해 동물원 등이 설치되었다.	창경궁
60	후원에 왕실 도서관인 규장각이 있었다.	창덕궁
60	도성 내 서쪽에 있어 서궐이라고 불렸다.	경희궁
60	인목 대비가 광해군에 의해 유폐된 장소이다.	덕수궁
60	국가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이 완성되었다.	성종
60	성삼문 등이 상왕의 복위를 꾀하다가 처형되었다.	세조
60	육의전을 제외한 시전 상인의 금난전권이 폐지되었다.	정조
60	반정 공신의 위훈 삭제를 주장한 조광조가 사사되었다.	기묘사화 (중종)
60	이조 전랑 임명을 둘러싸고 김효원과 심의겸이 대립하였다.	선조
60	은대라는 별칭이 있었다.	승정원
60	사간원, 홍문관과 함께 삼사로 불렸다.	사헌부
60	외국으로 가는 사신의 통역을 전담하였다.	사역원
60	천문, 지리, 기후 등에 관한 사무를 맡았다.	관상감
60	왕명 출납을 담당하는 왕의 비서 기관이었다.	승정원
60	국왕 직속 사법 기구로 반역죄 등을 처벌하였다.	의금부
60	정봉수가 후금군을 맞아 큰 전과를 거둔 곳	용골산성
60	병인박해 때 많은 천주교 신자가 처형된 장소	절두산 순교 성지
60	도산 서당 설립	퇴계이황
60	일본에 다녀와서 해동제국기를 편찬하였다.	신숙주
60	양명학을 연구하여 강화 학파를 형성하였다.	정제두
60	기축봉사를 올려 명에 대한 의리를 내세웠다.	송시열
60	무오사화의 발단이 된 조의제문을 작성하였다.	김종직
60	기대승과 사단칠정 논쟁을 전개하였다.	퇴계이황
60	마과회통 / 강진 유배 / 목민심서	정약용
60	지봉유설에서 천주실의를 조선에 소개하였다.	이수광
60	의산문답에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하였다.	홍대용
60	양반전을 지어 양반의 허례와 무능을 풍자하였다.	박지원
60	경세유표를 집필하여 국가 제도의 개혁 방향을 제시하였다.	정약용
60	금석과안록에서 북한산비가 진흥왕 순수비임을 고증하였다.	김정희
60	김상헌이 강화도에서 순절하였다.	병자호란
60	임경업이 백마산성에서 항전하였다.	병자호란
60	장용영의 외영이 설치된 위치	수원화성

회차	근세/근대 태동기의 한국사 (조선)	
60	곽재우가 의병장이 되어 의령 등에서 활약하였다.	임진왜란
60	신류가 조총 부대를 이끌고 흑룡강에서 전투를 벌였다.	효종
60	홍경래가 난을 일으켜 점령한 지역	청천강 이북 8군
60	인조가 피신하여 청군과 항전을 벌인 곳	남한산성
60	태조의 어진을 모신 경기전이 건립된 장소	전주
60	유계춘이 백낙신의 수탈에 맞서 봉기한 지역	진주
60	전국의 부/목/군/현에 하나씩 설립	향교
60	공자 등 성현을 기리는 석전대제를 거행	성균관
60	[시대] 한글 소설 / 시사 조직 / 한강 경강상인 / 정감록(왕권 교체 예언)	조선
60	[시대] 인삼 / 담배 / 목화 재배	조선
60	이괄이 반란을 일으켜 도성을 장악	인조
60	자의 대비의 복상 문제로 예송 전개	현종
60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왕자의 난 발생	이성계
60	이인좌를 중심으로 소론 세력 등이 난을 일으킴	영조
60	희빈 장씨 소생의 원자 책봉 문제로 한국이 발생	숙종
60	이천, 장영실 등이 제작한 활자로 인쇄하였다.	자치통감 (갑인자본)
60	가정 생활의 지혜를 담은 규합총서 저술	이빙허각
60	상인으로 활동하여 재산 기부로 흥년에 굶주린 제주도 백성 구제	김만덕
59	신문고 설치 / 사간원 독립	태종
59	명의 신종을 제사하는 대보단이 설치되었다.	숙종 (조선)
59	백과사전류 의서인 의방유취가 편찬되었다.	세종
59	왕권 강화를 위해 6조 직제제가 실시되었다.	태종
59	조선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이 반포되었다.	성종
59	역대 문물제도를 정리한 동국문헌비고가 간행되었다.	영조
59	수양대군, 한명회가 주도하여 김종서를 숙청하고 일으킨 정변	계유정난
59	정도전 등이 요동 정벌 계획을 추진하였다.	태조 (조선)
59	이종무가 왜구의 근거지인 쓰시마섬을 정벌하였다.	세종
59	김종직의 조의제문	무오사화
59	연산군의 폭정에 반발하여 신하들이 연산군을 몰아내고 즉위한 왕	중종
59	서인이 반정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였다.	인조반정
59	위훈 삭제를 주장한 조광조 일파가 제거되었다.	기묘사화
59	이인좌를 중심으로 한 일부 소론 세력이 난을 일으켰다.	이인좌의 난 (영조)
59	폐비 윤씨 사사 사건을 빌미로 김굉필 등이 처형되었다.	갑자사화 (연산군)
59	희빈 장씨 소생의 원자 책봉 문제로 한국이 발생하였다.	기사환국 (숙종)
59	담배, 고추 등 상품 작물이 재배되었다.	조선 후기
59	기유약조 체결	광해군 (1609)
59	청나라의 요청으로 나선정벌 추진	효종
59	어영청을 중심으로 북벌을 추진한 나라	청나라
59	한성에 동평관을 두어 무역을 허용한 나라	일본
59	포로 송환을 위해 회답 겸 쇄환사를 파견한 나라	일본
59	초계문신제 실시	정조
59	경기도에 한하여 대동법을 실시	광해군
59	한양을 기준으로 한 역법서인 칠정산을 만들었다.	세종
59	직전법을 제정하여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였다.	세조
59	친위 부대로 장용영을 설치하였다.	정조

회차	근세/근대 태동기의 한국사 (조선)	
59	원각사지 십층 석탑 건립	세조 (조선 전기)
59	인왕제색도 등 진경 산수화 그려졌다.	조선 후기
59	주자소 가 설치되어 계미자 가 주조되었다.	태종
59	표면에 백토를 바른 분청사기 가 유행하였다.	조선 전기
59	중종 때 삼포왜란 을 계기로 설치 / 국정 총괄 기구	비변사
59	업무 일지인 내각일력 을 작성하였다.	규장각
59	사헌부, 사간원과 함께 3사 로 불렸다.	홍문관
59	소속 관원을 은대 학사 라고도 칭하였다.	승정원
59	홍선 대원군 이 집권한 시기에 혁파되었다.	비변사
59	국왕 직속 사법 기구 로 중죄인을 다스렸다.	의금부
59	규장각의 검서관 으로 활동	유득공/박제가/정약용
59	양명학 을 연구해 강화학파를 형성하였다.	정제두
59	의산문답 에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하였다.	홍대용
59	북한산비가 진홍왕 순수비 임을 처음으로 밝혀냈다.	김정희 (금석과안록)
59	체질에 따라 치료를 달리하는 사상 의학 을 확립하였다.	이제마
59	서북 지방민에 대한 차별 / 홍경래, 우군칙 등이 주도	홍경래의 난
59	삼정이정청 이 설치되는 계기가 되었다.	임술농민봉기
59	윤원형 일파 가 정국을 주도한 시기에 발생	임꺽정의 난 (명종)
59	인조가 이괄의 난 으로 피란한 지역	공주 공산성
59	신립 장군 이 왜군과 맞서 싸운 지역	충주
58	국산 약재와 치료법을 소개한 향약집성방 을 편찬하였다.	조선 (세종)
58	기근에 대비하기 위해 구황촬요 를 간행하여 보급하였다.	조선 (명종)
58	유랑민을 구휼하는 활인서 를 두었다.	조선
58	송상이 전국 각지에 송방 을 설치하였다.	조선 후기
58	집현전을 계승한 홍문관 이 설치되었다.	성종
58	조준 등의 건의로 과전법 이 제정되었다.	태조
58	국가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 이 완성되었다.	성종
58	연분9등법 을 시행하여 수취 체제가 정비되었다.	세종
58	음악 이론 등을 집대성한 악학궤범 이 간행되었다.	성종
58	광군 을 조직하여 침입에 대비하였다.	거란 (고려 정종)
58	부산포, 제포, 염포 의 삼포를 개항하였다.	일본 (세종)
58	북평관 을 개설하여 사신 대응한 나라	여진
58	계해 약조 를 체결하여 일본과의 무역량을 제한하였다.	세종
58	' 농사직설 '을 집필한 왕	세종
58	국가의 의례를 정비한 국조오례의 가 완성되었다.	성종
58	효자, 충신 등의 사례를 제시한 삼강행실도 가 편찬되었다.	세종
58	군주가 수양해야 할 덕목을 제시한 성학집요 가 집필되었다.	이이
58	예학을 정리한 가례집람 이 저술되었다.	김장생 (선조)
58	아동용 윤리/역사 교재인 동몽선습 이 간행되었다.	박세무 (중종)
58	조선 국왕 직속의 특별 사법 기구 였다.	의금부
58	사람의 건의로 중종 때 폐지 되었다.	소격서
58	사헌부, 사간원과 함께 삼사 로 불리었다.	홍문관
58	5품 이하의 관원에 대한 서경권 을 행사하였다.	사헌부/사간원 (대간)
58	서얼 출신의 학자들이 검서관 을 기용되었다.	규장각
58	임진왜란 때 류성룡의 건의 로 편성된 부대	훈련도감

회차	근세/근대 태동기의 한국사 (조선)	
58	포수, 살수, 사수의 삼수병 으로 편제되었다.	훈련도감
58	국왕의 친위 부대로 수원 화성에 외영 을 두었다.	장용영
58	정봉수 가 용골산성에서 항전하였다.	정묘호란
58	이순신 명량해전 / 권을 행주대첩	임진왜란
58	서인 세력이 폐모살제 를 이유로 반정 을 일으켰다.	인조반정
58	박위 를 파견하여 근거지를 토벌하였다.	왜구
58	백두산정계비 를 세워 국경을 정하였다.	청나라 (조선 숙종)
58	한성에 동평관 을 두어 무역을 허용하였다.	왜구
58	포로 송환을 위하여 유정을 회담 겸 쇄화사 로 파견하였다.	왜구
58	균역법 실시	영조
58	수도 방위를 위하여 금위영 을 창설하였다.	숙종
58	속대전 을 편찬하여 통치 제도를 정비하였다.	영조
58	초계문신제 를 실시하여 젊은 문신들을 재교육하였다.	정조
58	전세를 1결당 4~6두로 고정하는 영정법 을 제정하였다.	인조
58	지방 행정 실무 를 담당하였다.	향리
58	이방, 호방 등 6방 에 소속되었다.	향리
58	동경대전 과 용담유사 를 경전으로 삼았다.	동학
58	박중빈 을 중심으로 새생활 운동을 전개하였다.	원불교
58	단군 숭배 사상 을 통해 민족의식을 고취하였다.	대종교
58	청을 다녀온 사신들에 의하여 서학 으로 소개되었다.	천주교
58	흙흙신서, 마과회통 등을 저술하였다.	정약용
58	성호사설에서 한전론 을 주장하였다.	이익
58	양반전 에서 양반의 허례와 무능을 지적하였다.	박지원
58	의산문답 에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하였다.	홍대용
58	북학의 에서 절약보다 적절한 소비를 권장하였다.	박제가
58	경세유표 에서 국가 제도의 개혁방향을 제시하였다.	정약용
58	나선 정벌 에 조총 부대가 동원되었다.	효종
58	박규수의 건의로 삼정이정청 이 설치되었다.	철종
58	지역 차별에 반발하여 홍경래가 봉기 하였다.	순조
58	시전 상인의 특권을 축소하는 신해통공 이 단행되었다.	정조
57	담배, 인삼 등의 상품 작물 을 재배하는 농민	조선 후기
57	물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아 광산을 운영하는 덕대	조선 후기
57	신해통공 시행 소식에 기뻐하는 난전 상인	정조 (조선)
57	서원을 세워 후진 양성과 서현 제향에 힘썼다.	조선
57	초계문신제 를 시행하여 문신들을 재교육하였다.	정조 (조선)
57	두 차례의 왕자의 난 으로 왕위에 오른 왕	태종 (이방원)
57	과전을 혁파하고 직전 을 설치하였다.	세조
57	어영청을 중심으로 북벌 을 추진하였다.	효종 (조선)
57	왕권 강화를 위해 6조 직제 를 실시하였다.	태종 / 세조
57	궁중 음악을 집대성한 악학궤범 을 편찬하였다.	성왕
57	김종직의 조의제문	무오사화
57	수양대군이 김종서, 황보인 등을 제거하고 반대파들을 숙청하여 정권을 장악한 정변	계유정난
57	반정 공신의 위훈 삭제 를 주장하였다.	조광조 (기묘사화)
57	윤임 일파가 제거되는 결과 를 가져왔다.	을사사화 (명종)
57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나뉘는 계기 가 되었다.	정철 건저의 사건

회차	근세/근대 태동기의 한국사 (조선)	
57	향리의 범법 행위를 규찰하고 풍속을 유지하였다.	유향소
57	주세붕이 처음 설립하였다.	백운동 서원
57	좌수와 별감을 선발하여 운영하였다.	유향소
57	중앙에서 교수와 훈도를 파견하였다.	향교
57	대성전을 세워 성현에 제사를 지냈다.	성균관
57	홍선 대원군에 의해 대부분 철폐되었다.	서원
57	세조 때 축조 / 박지원, 이덕무 등이 서로 교류하여 이들을 백담파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원각사지 10층 석탑
57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피신하였다.	병자호란
57	훈련도감이 설치되었다.	임진왜란
57	외규장각 도서관이 약탈되었다.	병인양요
57	곽재우가 의령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임진왜란
57	강홍립이 이끄는 부대가 참전하였다.	광해군 (중립외교)
57	김준룡이 광교산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병자호란
57	영의정 허적(남인)이 천막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경신환국
57	인현왕후 복위	갑술환국
57	양재역 벽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을사사화 이후
57	송시열이 관작을 삭탈당하고 유배되었다.	기사환국
57	자의 대비 복상 문제로 예송이 전개되었다.	현종 (예송논쟁)
57	정여립 모반 사건으로 기축옥사가 일어났다.	선조 (봉당)
57	봉당의 폐해를 막기 위해 탕평비가 세워졌다.	영조
57	방납의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 공물을 현물 대신 쌀, 배 등으로 납부하였다.	대동법 (광해군)
57	어염세, 선박세 등이 국가 재정으로 귀속되었다.	균역법
57	전세를 풍흉에 따라 9등급으로 차등 과세하였다.	공법 (세종)
57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지주에게 결작이 부과되었다.	균역법
57	관청에 물품을 조달하는 공인이 등장하였다.	대동법 (광해군)
57	속대전 편찬	영조
57	대전통편 편찬	정조
57	청과의 국경을 정한 백두산 정계비를 세웠다.	숙종
57	이종무를 파견하여 대마도를 정벌하였다.	세종대왕
57	국왕의 친위 부대인 장용영을 설치하였다.	정조
57	나선 정벌에 조종 부대를 파견하였다.	효종
57	성호사설 저술, 노비 제도의 개혁, 서얼 차별 폐지	이익
57	이벽 등과 교류하며 천주교를 받아들였다.	이승훈
57	북한산비가 진흥왕 순수비임을 고증하였다.	김정희 (금석과안록)
57	동호문답에서 수취 제도의 개혁 등을 제안하였다.	율곡이이
57	가례집람을 지어 예학을 조선의 현실에 맞게 정리하였다.	김장생
57	곽우록에서 토지 매매를 제한하는 한전론을 주장하였다.	이익
57	중인들이 시상을 조직하였다.	조선후기
57	양반의 위선을 풍자한 탈춤이 공연되었다.	조선후기
57	춘향가, 흥보가 등의 판소리가 유행하였다.	조선후기
57	홍길동전, 박씨전 등의 한글 소설이 널리 읽혔다.	조선후기
57	풍속화 (김득신, 김홍도)	조선후기
57	저 불씨는 사람이 사악한지 정의로운지 올바른지 그른지는 가리지 않고 말하기를...	정도전 '불씨잡변'
57	사단의 정은 이가 발하고 기가 따르니... / 칠정은 기가 발하고 이가 그것에 타는 것이니...	이황 '성학십도'
57	기대승과의 논쟁을 통해 성리학의 이해를 심화, 일본 유학의 발전에 영향	이황 (동방의 주자)

회차	근세/근대 태동기의 한국사 (조선)	
57	독창적으로 경서를 해석 하여 사서에 대한 주자의 해석 반박	박세당
57	북학의 를 저술	박제가 (조선 후기)
56	북방에 4군과 6진 을 설치하였다.	세종
56	의종 복위 를 도모하여 군사를 일으켰다.	김보당의 난
56	위화도 에서 회군하여 정권을 장악하였다.	이성계
56	현직 관원들만 수조권 을 지급받았다.	직전법 (세조)
56	왕에게 직계 하는 이조 판서	6조 직계제 (태종/세조)
56	임척정 무리를 토벌하는 관군	명종
56	동몽선습 을 공부하는 서당 학생	중종 (박세무)
56	동의보감 을 요청하는 중국 사신	광해군 (허준)
56	시장에 팔기 위해 담배 를 재배하는 농민	조선 후기
56	경국대전 을 완성하였다.	성종
56	탕평비 가 건립되었다.	영조
56	상평통보 가 주조되었다.	숙종
56	악학궤범 이 간행되었다.	성종
56	훈련도감 이 설치되었다.	선조 (중앙군)
56	초계문신제 가 시행되었다.	정조 (규장각)
56	정국공신의 위훈 삭제 사건 / 현량과 시행	기묘사화 (조광조)
56	간쟁과 논박 을 담당한 관청	사간원
56	왕명의 출납 을 관장하였다.	승정원
56	수도의 행정과 치안 을 담당하였다.	한성부
56	사헌부, 홍문관과 함께 3사 로 불렸다.	사간원
56	실록 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다.	춘추관
56	반역죄, 강상죄 등을 범한 중죄인을 다스렸다.	의금부
56	유정이 회답 겸 쇄환사 로 일본에 파견되었다.	선조 (임진왜란 이후)
56	신숙주가 일본에 다녀와 해동제국기 를 저술하였다.	성종
56	조선 정부의 통제에 반발하여 삼포왜란 이 일어났다.	중종
56	외침에 대비하기 위해 임시 기구로 비변사 가 설치되었다.	중종
56	군역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군역법 이 제정되었다.	영조
56	육의전을 제외한 시전 상인의 금난전권 이 폐지되었다.	정조
56	풍기 군수 주세붕 이 처음 건립하였으며, 흥선대원군에 의해 정리	서원
56	전국의 모든 군현 에 하나씩 설치되었다.	향교
56	선현의 제사와 유학 교육 을 담당하였다.	서원
56	전문 강좌인 7재 가 설치되어 운영되었다.	국자감 (고려)
56	중앙에서 교수나 훈도 를 교관 으로 파견 하였다.	향교
56	소과에 합격한 생원, 진사 에게 입학 자격이 부여되었다.	성균관
56	의산문답 에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하였다.	홍대용
56	목민심서 에서 지방 행정의 개혁안을 제시하였다.	정약용
56	열하일기 에서 수레와 선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박지원
56	성호사설 에서 사회 폐단을 여섯 가지 쯤으로 규정하였다.	이익
56	북학의 에서 절약보다 적절한 소비를 권장하였다.	박제가
56	평안도 일대에서 발생한 농민 봉기	홍경래의 난
56	정기적으로 연행사 를 보내 교류하였다.	청나라 (인조 이후)
56	한성에 동평관 을 설치하여 무역을 허용하였다.	일본
56	통신사 를 파견하여 조선의 문물을 전파하였다.	일본

회차	근세/근대 태동기의 한국사 (조선)	
55	전품을 6등급으로 품흥을 9등급으로 나누어 전세를 수취하였다.	세종
55	음악 이론 등을 집대성한 악학궤범이 완성되었다.	성종
55	민간의 광산 개발을 허용하는 설점수세제가 시행되었다.	효종
55	우리 풍토에 맞는 농법을 소개한 농사직설이 편찬되었다.	세종
55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는 직전법이 제정되었다.	세조
55	우리나라와 중국의 의서를 망라한 동의보감이 간행되었다.	광해군
55	정광필 등의 건의에 따른 소격서 혁파 / 정국공신의 훈적 삭제	중종
55	조총 부대를 나선 정벌에 파견하였다.	효종
55	4군 6진을 설치하여 북방 영토를 개척하였다.	세종
55	단종 복위 운동을 계기로 집현전을 폐지하였다.	세조
55	국가의 의례를 정비한 국조오례의를 편찬하였다.	성종
55	신진 인사를 등용하기 위한 현량과를 실시하였다.	중종
55	이시애가 길주를 근거지로 난을 일으켰다.	세조 (이시애의 난)
55	기축옥사로 이발 등 동인 세력이 제거되었다.	정철 (서인)
55	양재역 벽서 사건으로 이언적 등이 화를 입었다.	명종
55	수양대군이 김종서 등을 살해하고 권력을 장악하였다.	계유정난
55	이조 전랑 임명을 둘러싸고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었다.	선조
55	정조의 명에 의해 설치된 왕실 도서관이자 학술 연구 및 정책 자문 기관	규장각 (정조)
55	을묘왜변을 계기로 상설화되었다.	비변사
55	은대, 후원이라고도 불리었다.	승정원
55	5품 이하 관리 임명에 서경권을 행사하였다.	대간 (사헌부, 사간원)
55	대사성을 중심으로 좌주, 직강 등의 관직을 두었다.	성균관
55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초계문신제를 주관하였다.	정조
55	수원 화성에 외영을 두었다.	장용영 (정조)
55	후금의 침입에 대비하고자 창설되었다.	인조 (어영청)
55	포수, 사수, 살수의 삼수병으로 편제되었다.	훈련도감
55	일본인 교관을 초빙하여 군사 훈련을 받았다.	별기군
55	동래성 전투(송상현) 탄금대 전투(신립) 한산도 대첩(이순신) 진주 대첩(김시민) 평양성 탈환(조/명 연합군) 행주 대첩(권율)	임진왜란
55	군역법을 제정하여 백성의 군역 부담을 줄였다.	영조
55	조선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을 완성하였다.	성종
55	붕당의 폐해를 경계하기 위한 탕평비를 건립하였다.	영조
55	시전 상인의 특권을 축소한 신해통공을 실시하였다.	정조
55	전세를 1결당 4~6두로 고정하는 영정법을 제정하였다.	인조
55	각 국방과 중앙 관서의 공노비 6만여 명을 해방하였다.	순조
55	북한산비가 진흥왕 순수비 중의 하나임을 고증하였다.	금석과안록 (김정희)
55	담헌서를 통해 과거제 폐지를 주장하였다.	홍대용
55	역대 명필을 연구하여 추사체를 창안하였다.	김정희
55	북학의를 저술하여 수레와 배의 이용을 권장하였다.	박제가
55	연려실기술에서 조선의 역사를 기사 본말체로 서술하였다.	이금익
55	주역을 바탕으로 수론을 전개한 구수략을 저술하였다.	최석정
55	왕이 도성을 떠나 공산성으로 피란하였다.	인조
55	정유재란 때 소실되었다가 인조 때 중건 / 현존 유일 조선시대 목탑	법주사 팔상전
55	홍경래 등이 난을 일으켜 정주성을 점령하였다.	순조
55	이인좌를 중심으로 한 소론 세력이 난을 일으켰다.	영조

회차	근세/근대 태동기의 한국사 (조선)	
54	주자소가 설치되어 계미자 가 주조되었다.	태종
54	훈련 교범인 무예도보통지 가 간행되었다.	정조
54	삼수병으로 구성된 훈련도감 이 설치되었다.	선조
54	전통 한의학을 집대성한 동의보감 이 완성되었다.	광해군
54	우리 풍토에 맞는 농법을 정리한 농사직설 이 편찬되었다.	세종
54	사헌부, 사간원과 함께 3사 로 불렸다.	홍문관
54	을묘왜변 을 계기로 상설 기구화되었다.	비변사
54	왕의 비서 기관으로 왕명의 출납을 담당하였다.	승정원
54	국왕 직속 사법 기구로 반역죄, 강상죄 등을 처결 하였다.	의금부
54	궁중의 서적과 문서를 관리 하며, 옥당/옥서 등의 별칭이 있었다.	홍문관
54	조선시대 지방 교육 기관 으로 중앙에서 교수나 훈도를 파견하기도 하였다.	향교
54	생원 과 진사 에게 입학 자격을 부여하였다.	성균관
54	풍기 군수 주세붕 이 처음 세웠다.	사원
54	전문 강좌인 7재 를 운영하며 유학을 비롯하여 율학, 서학, 산학을 교육하였다.	국자감 (고려)
54	연산군이 생모(폐비 윤씨) 의 죽음과 관련된 이들을 제거하였다.	갑자사화
54	윤원형 등 소운 세력 이 윤임 등 대운 세력을 제거하였다.	을사사화
54	신진 인사를 등용하기 위해 현량과 가 시행되었다.	기묘사화
54	허적과 윤휴 등 남인이 대거 축출 되었다.	경신환국
54	조의제문 이 발단이 되어 김일손 등이 처형되었다.	무오사화
54	' 국조오례의 '와 ' 악학궤범 '이 편찬되었다.	성종 (조선)
54	상평통보 를 발행하여 법화로 사용하였다.	숙종
54	법령을 정비하여 경국대전 을 반포하였다.	성종 (조선)
54	' 구황촬요 '를 간행하여 기근에 대비하였다.	명종
54	초계문신제 를 시행하여 문신들을 재교육하였다.	정조
54	' 동국문헌비고 '를 편찬하여 역대 문물을 정리하였다.	영조
54	임경업이 백마산성 에서 항전한 전쟁	병자호란
54	김시민이 진주성 전투 에서 대승을 거둔 전쟁	임진왜란
54	조명 연합군이 평양성 을 탈환 한 전쟁	임진왜란
54	권율이 행주산성 에서 크게 승리한 전쟁	임진왜란
54	조헌이 금산에서 의병 을 이끌고 활약한 전쟁	임진왜란
54	이순신 이 한산도 앞바다에서 학익진을 펼쳐 승리한 전쟁	임진왜란
54	군역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군포를 2필에서 1필 로 감면한 정책	균역법 (영조)
54	일부 부유한 양민에게 선무군관포 를 징수하였다.	균역법 (영조)
54	풍흉에 따라 전세를 9등급 으로 차등 과세하였다.	연분 9등법 (세종)
54	수신전, 홀양전 등의 명목으로 세습되는 토지를 폐지하였다.	직전법 (세조)
54	양반사대부 문학을 모방하여 한시를 짓고 시집을 발간하는 시사(詩社) 조직	조선 후기
54	여러 장시를 돌려 물품을 판매하는 보부상	조선 후기
54	저잣거리에서 한글 소설 을 읽어주는 전기수	조선 후기
54	채소, 담배 등의 상품 작물 을 재배하는 농민	조선 후기
54	관부에서 지정한 공납 청부업자인 ' 공인 ' 활동	조선 후기
54	재화를 우물물 에 비유하며 소비 축진을 통한 생산력의 증대를 주장	박제가
54	기기도설을 참고하여 거중기 를 설계하였다.	정약용
54	양명학 을 연구하여 강화학파를 형성하였다.	정제두
54	북학의 에서 수레와 배의 이용을 권장하였다.	박제가
54	열하일기 에서 화폐 유통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박지원

회차	근세/근대 태동기의 한국사 (조선)	
54	우서에서 사농공상의 직업적 평등을 주장하였다.	유수원
54	10리마다 눈금을 표시하였고, 전체 22첩의 목판본으로 되어 있다.	대동여지도 (김정호)
54	최초로 100리 척이 적용되었다.	동국대지도 (정상기)
54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현존 최고(最古)의 세계 지도이다.	혼일강리역대국지도 (조선 태종)
54	각 지방의 연혁, 산천, 풍속 등이 자세히 나타나 있다.	택리지 (이종환)
54	전국의 지리 정보에 주요 인물과 역사적 사실을 병기하였다.	조선팔도고금총람도 (김수흥)
53	향약집성방, 칠정산 내편, 계미자/갑인자, 농사직설, 양부일구, 신기전	세종
53	수신전/홍양전 폐지하고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 지급	직전법 (세조)
53	관청에서 수조권 대리 행사	관수관급제 (성종)
53	계유정난 - 김종서, 황보인 등을 제거하고 반대파들을 숙청하여 정권을 장악하였다.	세조(수양대군)
53	나선 정벌에 조총 부대가 동원되었다.	북벌 운동 (효종)
53	권율이 해주산성에서 적군을 격퇴하였다.	임진왜란
53	정봉수(철산)와 이립(의주)이 용골산성에서 항쟁하였다.	정묘호란
53	소현 세자와 봉림 대군 등이 청에 인질로 끌려갔다.	병자호란
53	왜적의 침입에 대비하고자 비변사가 처음 설치되었다.	임진왜란/정유재란
53	어영청을 중심으로 북벌을 추진하였다.	효종
53	국왕의 친위 부대인 장용영을 설치하였다.	정조
53	조선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을 완성하였다.	성종
53	청과의 경계를 정한 백두산정계비를 세웠다.	숙종
53	군역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군역법을 제정하였다.	영조
53	동학을 창시하였다	최제우
53	계해약조를 체결하여 왜와의 무역량을 제한하였다.	세종
53	성균관에 탕평비 건립을 명하였다.	영조